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님께

먼저 지난 8월 21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위원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지를 보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작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으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처음으로 8월 국감을 실시하려다가 분리 국정감사 자체가 좌초되고 10월에 예년처럼 통합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비공식뉴스뿐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법치주의란, 국민들이 법을 믿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도 하고, 설제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등 국가 5부와 지방자치의 국정을 엄중히 감사하는 국정감사조차 8월 26일(화)부터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공표해놓고도 하루 전날인 현재까지 여야의 갈등으로 국감실시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자화상이며 한계인 것입니다.

또한, 여야 모두 현재로서는 분리국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 국정감사 연기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의 주인이며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국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분리 국정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것이었는데, 여야의 갈등고조로 인해 이 개정안 자체가 무산되었고, 현행 국정감사법대로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야가 본회의를 못 열고 있어 예정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포기하는 국회에 전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우리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모니터단 명의의 규탄성명을 자제하고, 연기되는 국정감사가 잘 치러지도록 충실한 모니터 준비를 다짐하며, 모니터위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25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사무국 드림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은퇴자협회